

‘伍子胥 이야기’의 계승과 변용

— 《史記·伍子胥列傳》을 중심으로 —

김 이 식*

〈目 次〉

I. 서론	V. 복수
II. 사건의 원인	VI. 보은[忠]과 사사(賜死)
III. 망명	VII. 결론
IV. 인내	

I. 서론

‘伍子胥 이야기’는 중국문학사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문학 장르로 계승 변용되면서 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대중들로부터 각별한 주목과 사랑을 받고 있다. ‘오자서 이야기’의 원형은 先秦시기의 歷史散文과 諸子散文에 단편적으로 남아있다. 그중 敘事 요소가 비교적 가미된 것으로는 《左傳》, 《國語》, 《穀梁傳》, 《韓非子》, 《呂氏春秋》와 《戰國策》 등이 있고, 오자서에 대한 인물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는 《荀子》, 《莊子》 등이 있으며, 《楚辭》와 같은 문학서에도 언급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司馬遷은 주로 《좌전》에 근거하고¹⁾, 일부는 《국어》, 《전국책》, 《여씨춘추》, 《곡량전》에서 소재를 취해 《史記·伍子胥列傳》을 만들었다. 사마천은

* 영진전문대학교 중국어전공 교수

1) 韓兆琦, 《史記博議》, 台北: 文津, 1995, 248쪽 참조.

또 오자서와 관련성이 있는 일부 내용을 《사기》 서술법의 하나인 互見法으로 〈吳世家〉, 〈楚世家〉, 〈越王句踐世家〉와 〈刺客列傳〉 등에서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마천은 주로 서사적 요소가 강한 《좌전》을 중심으로 여타 선진 전적의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오자서 이야기’를 《史記·伍子胥列傳》에서 사건의 원인→망명→인내→복수→보은[忠]→사사(賜死) 되기까지의 과정으로 재편하였다. 사마천은 선진시기 전승되던 ‘오자서 이야기’를 《사기·오자서열전》으로 재편하면서 문학적 서사를 통해 온갖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공명을 세우고 마침내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은 오자서를 ‘복수의 화신’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선진시기부터 전승되던 ‘오자서 이야기’의 열개는 사마천의 손을 거치며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로 재창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수많은 《사기》 평론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좌전》과 《국어》 및 선진의 기타 전적 중에 흩어져 있던 ‘오자서 이야기’가 사마천의 손을 거치면서 어떻게 계승되고 변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²⁾ 필자는 지금까지 《사

- 2) 선진에서 한대에 이르는 ‘오자서 이야기’의 텍스트 변용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로는 楊華·馮聞文的 〈伍子胥故事의文本流變和中國古代的價值觀〉, 高雲萍의 〈伍子胥故事的歷史演變〉, 陳洪·姚瑤의 〈先秦子書與伍子胥故事〉, 陳曉琳의 〈先秦時期伍子胥形象的確立與發展〉이 있다. 楊華·馮聞文은 논문에서 《左傳》·《史記》·《越絕書》·《吳越春秋》·《新列國志》등에서 ‘伍尚決死’의 텍스트와 관련된 부분의 비교를 통해 오자서 형제의 서로 다른 선택에 주목하여 이야기의 정신과 내용에 그 시대의 가치관이 텍스트의 변용에 영향을 끼쳤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텍스트 전체가 아닌 일부에 한정된 논의라는 점에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高雲萍은 그의 논문에서 《좌전》, 《국어》에 단편적으로 흩어져있는 ‘오자서이야기’가 《한비자》, 《여씨춘추》를 거치면서 가공을 통해 ‘이야기’화 되기 시작했으며, 사마천의 붓끝을 통해 ‘이야기’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마천이 선진시기의 자료를 어떻게 취사선택하고, 무엇 때문에 문학적 서사를 통해 재편했는지, 또 어떤 자료를 선택하고 배제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누락되어있다. 陳洪·姚瑤와 陳曉琳의 논문은 단지 선진시기 ‘오자서 이야기’의 변용 양상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기존의 선행연구가 선진시기부터 전승된 ‘오자서 이야기’가 사마천의 <오

기》 관련 연구논문에서 사마천 《사기》 ‘一家之言’의 서사 취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자서 이야기’의 계승과 변용에 대한 본 연구가 사마천의 창작의식과 《사기》 ‘일가지언’의 서사 취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사건의 원인

사마천이 《사기·오자서열전》을 지을 때 주로 《좌전》에 근거하고 《국어》, 《여씨춘추》, 《전국책》, 《곡량전》 등에서 일부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마천은 ‘오자서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을 《좌전》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였다. 오자서와 관련된 사건은 《좌전》 昭公 19年·20年, 昭公 30·31年, 定公 4年, 哀公 元年, 哀公 11年 일곱 곳에서 시간의 추이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 사건의 원인 전개 과정은 먼저 《좌전·소공》 19년에 기술되어 있다. 《좌전·소공》 19년에 초나라 태자 建이 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楚平王은 吳奢를 師로, 費無忌를 少師로 삼았다. 왕의 총애를 잃었다고 생각한 비무기가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태자의 비로 삼을 嬴氏를 초평왕에게 취하게 하는 부도덕함과 부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행 및 오사를 포함하는 과정³⁾이 《좌전》에 소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사마천은 《사기·오자서열전》에서 오자서의 가계에 대한 소개

자서열전》에 의해 체계가 갖춰졌다는 것을 언급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논의 또한 대동소이하고 그러한 견해가 사실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선진시기부터 한대에 전해져오던 ‘오자서이야기’를 사마천이 《오자서열전》으로 재편하면서 어떻게 계승하고 변용시키고 있으며, 사마천의 창작의식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左傳·昭公十九年》：“楚子之在蔡也，鄆陽封人之女奔之，生太子建。及即位，使伍奢爲之師。費無極爲少師，無寵焉，欲譖諸王曰“建可室矣。”王爲之聘于秦，無極與逆，勸王取之。正月，楚夫人嬴氏至自秦。”

에서부터 사건의 전말을 《좌전》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사건의 발단과 후속적인 전개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⁴⁾

《좌전·소공》 20년에 태자 건과 오자서 부자를 해치기 위한 비무기의 간계와 이에 대처하는 오자서 형제의 대응책이 기술되어 있다. 《좌전》은 인물의 성격을 인물에 대한 개괄묘사 및 각 인물 간의 간결한 대화로 잘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伍尚과 伍員[오자서]의 대화에서 두 인물의 성격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오상과 오자서 두 형제의 대화에서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위협하는 초왕에 맞서 향후 대책을 세우는 인물이 오자서가 아닌 오상이고, 오상이 만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오상은 정세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지극한 효성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오자서의 능력은 형의 입(吾知不逮)을 통해 비로소 독자에게 전달된다. 이 또한 오상의 지혜로움과 안목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오자서는 운명에 맞서 싸우는 능동적인 인물이 아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인물에 대한 개괄묘사 및 대화체에 의한 성격묘사는 《사기》에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들 인물의 성격이 상반되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마천은 《사기·오자서열전》에서 오자서의 성격을 고집과 강단이 있는 인물로, 오상을 오히려 나약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두 형제의 성격적 특징은 평왕이 오사를 인질로 잡고 그의 목숨을 담보로 두 아들을 불러들이라고

- 4) 《史記·伍子胥列傳》: 伍子胥者, 楚人也, 名員。員父曰吳奢, 員兄曰伍尚, 其先曰伍舉, 以直諫社楚莊王。……楚平王有太子名曰建, 使伍奢爲太傅, 費無忌爲少傅, 無忌不忠於太子建。平王使無忌爲太子取婦於秦, 秦女好, 無忌馳婦報平王曰‘秦女絕美, 王可自取, 而更爲太子取婦’, 平王遂自取秦女而絕愛幸之, 生子軫。更爲太子取婦, 無忌既以秦女自媚於平王, 因去太子而事平王, 恐一旦平王卒而太子立, 殺己, 乃因讒太子建。”
- 5) 《左傳·昭公二十年》: “棠君尚謂其弟員曰爾適吳, 我將歸死。吾知不逮, 我能死, 爾能報。聞免父之命, 不可以莫之奔也。親戚爲戮, 不可以莫之報也。奔死免父, 孝也。度功而行, 仁也。擇因而往, 知也。知死不辟, 勇也。父不可棄, 名不可廢, 爾其勉之! 相從爲愈。”

하자, 오사가 초평왕에게 두 형제의 성격을 분석한 데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는 오사가 초평왕에게 “상은 사람됨이 어질어 내가 부르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원은 사람됨이 강인하고 고집스러우면서도 굴욕을 참을 줄 알아 큰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는 오면 함께 잡힐 것을 알고 반드시 오지 않을 것”⁶⁾이라고 한 대답에서 잘 드러난다. 부모보다 자식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사마천은 이런 점을 심분 활용해 오상과 오자서의 성격적 특징을 아버지 오사의 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실 왕과 신하가 나눈 이 대화를 당시 누군가가 듣고 기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대화는 사마천의 손을 거치며 가공된 것으로 보인다. 《좌전》 및 선진시기의 諸子書에도 이런 유형의 대화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대화체 형식이 특히 《사기》에서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할 때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리는 오사의 예전대로 초평왕의 부름에 달려가려는 오상의 모습에서 오상의 경솔하고 무모한 일면을 보게 되고, 또 “나 역시 그곳으로 가더라도 끝내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원수도 갚지 못하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⁷⁾라고 한 오상의 말에서 오상이 소의에 집착해 대의를 놓치는 인물임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초나라에서 우리 형제를 부르는 것은 아버지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자가 생기면 나중에 후환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버지를 인질로 삼고 거짓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하면 부자가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간다면 복수조차 할 수 없게 될 터인데 차라리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가 병력을 빌려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 같이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⁸⁾라며 형을 설득시키는 오자서의 말에

6) 《史記·伍子胥列傳》: 伍奢曰“能致如二子則生, 不能則死.” 伍奢曰“尚爲人仁, 呼必來, 員爲剛戾忍諂, 能成大事. 彼見來之并禽, 其勢必不來.”

7) 《史記·伍子胥列傳》: 我知往終不能全父命, 然恨父召我以求生而不往, 後不能雪恥, 終爲天下笑耳.

서 오자서가 상황 분석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소의보다는 대의를 위해 후일을 기약하는 지혜와 강단이 있는 인물임을 알게 된다. 이렇듯 사마천은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대화를 통해 드러내며 사건의 후속적인 전개과정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망명

오자서의 망명과 관련된 부분은 《좌전·소공》20년, 《한비자·설림상》, 《여씨춘추·맹동기》와 《전국책》에 일부가 기술되어 있다. 《좌전》에는 ‘員如吳’로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다. 반면 《한비자·설림상》에는 오자서가 기지를 발휘해 초나라를 탈출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고,⁹⁾ 《여씨춘추》에는 자신이 가야 할 망명지를 許公에게 묻는 장면과 의로운 어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강을 건너는 과정이 매우 짜임새 있게 묘사되고 있다.¹⁰⁾ 《전국책》에는 昭關을 빠져나와 밤에 길을 가고 낮에 숨어 지내며 천신만고 끝에 오나라로 달아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¹¹⁾ 《좌전》에서 ‘員如吳’

8) 《史記·伍子胥列傳》: 員曰“楚之召我兄弟, 非欲以生我父也. 恐有脫者, 後生患. 故以父爲質, 詐召二子. 二子到, 則父子俱死, 何益父之死? 往而令讎不得報耳. 不如奔他國, 借力以雪父之恥. 俱滅, 無爲也.”

9) 《韓非子·說林》: 子胥出走, 邊侯得之. 子胥曰“上索我者, 以我有美珠也. 今我已亡之矣, 我且曰. 子取吞之.”侯因釋之.

10) 《呂氏春秋·孟冬紀》卷十三: 五員亡, 荆急求之, 登太行而望鄭曰“蓋是國也, 地險而民多知, 其主, 俗主也, 不足與舉.” 去鄭而之許, 見許公而問所之. 許公不應, 東南嚮而唾, 五員載拜受賜, 曰“知所之矣.” 因如吳, 過於荆, 至江上, 欲涉, 見一丈人, 刺小船, 方將漁, 從而請焉. 丈人度之絕江, 問其名族, 則不肯告. 解其劍以予丈人, 曰“此千金之劍也, 願獻之丈人.” 丈人不肯受, 曰“荆國之法, 得五員者, 爵執圭, 祿萬櫓, 金千鎰. 昔者子胥過, 吾猶不取, 今我何以子之千金劍爲乎?” 五員過於吳, 使人求之江上, 則不能得也. 每食必祭之, 祝曰“江上之丈人!” 天地至大矣, 至衆矣! 蔣奚不有爲也? 而無以爲矣, 而無以爲之名不可得而聞, 身不可得而見, 其惟江上之丈人乎!

11) 劉向, 《戰國策·秦策》: 伍子胥橐載而出昭關, 夜行而晝伏, 至於淩水. (台北:

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오자서의 망명 과정을 사마천은 《사기·오자서열전》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오자서는 마침내 달아났다. ……오자서가 송나라에 도착했을 때, 송나라에는 화씨의 난이 일어났으므로 태자 건과 함께 정나라로 달아났다. 정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잘 대우해 주었으나, 태자 건은 다시 진(晉)나라로 갔다. 진나라 경공이 “태자는 정나라와 사이가 좋고, 정나라에서도 태자를 신뢰하고 있소. 태자가 나를 도와 안에서 내응해 주고, 내가 밖에서 친다면 틀림없이 정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요. 정나라가 멸망하면 태자를 그곳의 왕으로 봉하겠소.” 결국 태자는 정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공교롭게도 태자가 사사로운 일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시종을 죽이려고 한 일이 일어났다. 시종이 그의 음모를 다 알고 이 사실을 정나라에 낱낱이 알렸다. 그러자 정나라 정공과 자산이 태자 건을 죽였다. 건에게는 승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겁에 질린 오자서는 승과 함께 서둘러 오나라로 달아났다. 12)

《좌전》에서 오자서가 오나라로 망명하는 과정이 ‘員如吳’ 단 세 글자로 압축되어 있다면, 《사기·오자서열전》에는 온갖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천신만고 끝에 오나라로 망명하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사기·오자서열전》에 오자서가 처음 망명한 곳은 宋나라이고, 송나라에서 華氏의 난으로 다시 鄭나라로 달아난 것으로 되어있다. 이어지는 서술에서 태자 건이 정나라에서 홀로 쯤나라로 망명했다가 진나라 頃公의 꼬임에 속아 정나라를 도모하기 위해 다시 정나라로 돌아온 뒤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자 오자서가 태자 건의 아들 승과 함께 마침내 오나라로 달아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내용은 《좌전》에서 누락되어 있

九思出版社), 1978년, 186쪽.

- 12) 《史記·伍子胥列傳》: 伍胥遂亡, ……伍胥既至宋, 宋有華氏之亂, 乃與太子建俱奔於鄭. 鄭人甚善之. 太子建又適晉, 晉頃公曰“太子既善鄭, 鄭信太子. 太子能爲我內應, 而我攻其外, 滅鄭必矣. 滅鄭而封太子.”太子乃還鄭. 事未會, 會自私欲殺其從者, 從者知其謀, 乃告之於鄭. 鄭定公與子產誅殺太子建. 建有子名勝. 伍胥懼, 乃與勝俱奔吳.

다. 이런 일화의 첨가는 오자서의 망명 과정이 순탄치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오자서가 망명 중에 처한 일련의 긴박한 상황을 사마천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소관에 이르렀을 때, 소관을 지키는 병사들이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오자서는 승과 헤어져 혼자 도망치다가 추격자가 뒤에서 바짝 따라붙어 하마터면 탈출하지 못할 뻔했다. 오자서가 장강에 이르렀을 때, 마침 장강에서 배를 타고 있던 한 어부가 오자서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고 그를 건네주었다. 오자서는 강을 건너고 나자 갖고 있던 칼을 풀어 어부에게 주며 “이 칼은 백금의 가치는 될 것이니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지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부는 “초나라 법에 오자서 당신을 잡는 자에게는 좁쌀 5만 석과 집규라는 벼슬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찌 이까짓 백금의 칼이 문제겠습니까?”라고 말하고 끝내 칼을 받지 않았다. 오자서는 오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병이 나 가던 길을 멈추고 밥을 빌어먹기도 하였다.¹³⁾

이 내용은 《좌전》과 《국어》에 보이지 않는다. 사마천이 《여씨춘추》와 《전국책》에서 소재를 일부 가져와 윤색한 것으로 보인다. 《여씨춘추》에서 오자서가 허공에게 자신이 가야 할 행선지를 묻는 장면은 삭제되고, 소관에서 병사들의 추적으로 거의 붙잡힐 위기의 상황에서 의로운 어부의 도움으로 간신히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된 장면 일부는 윤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국책》에 기술된 긴박했던 오자서의 망명 과정 일부가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마천은 이들 자료의 편집과 윤색을 통해 오나라로 망명하는 오자서의 긴박했던 탈출 과정을 핏진하게 묘사하고 있다.

13) 《史記·伍子胥列傳》: 到昭關, 昭關欲執之. 伍胥遂與勝獨身步走, 幾不得脫. 追者在後. 至江, 江上有一漁父乘船, 知伍胥之急, 乃渡伍胥. 伍胥既渡, 解其劍曰 “此劍直百金以與父.” 父曰 “楚國之法, 得伍胥者賜粟五萬石, 爵執珪, 豈徒百金劍邪!” 不受. 伍胥未至吳而疾, 止中道, 乞食.

IV. 인 내

《사기·오자서열전》에 오자서가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과정이 무척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부분은 《좌전》과 《전국책》에 일부가 기술되어 있다. 《좌전》에는 오나라로 간 오자서가 공자 光이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공자 광에게 자객 전제를 추천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¹⁴⁾ 《전국책》에는 오자서가 천신만고 끝에 오나라로 망명하는 과정과 먹을 것이 없어 오나라 저갯거리를 기어 다니며 결식하였지만 결국 오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오왕 闔閭를 패자로 만들었다고 기술되어 있다.¹⁵⁾

오자서는 오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병이 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먹을 것을 구걸했다. 오나라에 이르렀을 때 오왕 僚가 막 집권했고 공자 光은 장군이였다. 오자서는 공자 광을 통해 오왕을 만났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초나라의 변방 읍인 鐘離와 오나라의 변방 읍인 卑梁氏는 모두 누에를 쳤다. 두 곳의 여자들이 뽕나무를 두고 다투다 서로를 공격하여 크게 화가 나서는 두 나라가 군대를 일으켜 서로를 공격했다. 오나라는 공자 광에게 초나라를 정벌하게 하여 종리와 居巢를 함락시키고 돌아왔다. 오자서가 오왕 요에게 “초나라를 꺾 수 있습니다. 다시 공자 광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득했다. 공자 광은 오왕에게 “저 오자서는 아버지와 형이 초나라에서 피살당했습니다. 왕께 초나라를 치라고 권하는 것은 자신의 원수를 갚고 싶어서입니다. 초나라를 쳐도 꺾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오자서는 공자 광이 딴 마음을 갖고 오왕 요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한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대외적인 일을 말하지 않았다. 공자 광에게 專諸를 추천하고는 몰려나 태자 건의 아들 승과 함께 외진 곳에서 농사를 지었다.¹⁶⁾

14) 《左傳·昭公二十年》：員如吳，言伐楚之利於州于。公子光曰“是宗爲戮，而欲反其讐，不可從也。”員曰“彼將有他志，余姑爲之求土，而鄙以待之。乃見鱄設諸焉，而耕於鄙。

15) 《戰國策·秦策》：伍子胥橐載而出昭關，夜行而晝伏，至於淩水，無以餌其口，坐行浦服，乞食于吳市，卒興吳國，闔閭爲霸。台北：九思出版社，1978년，186쪽.

《사기·오자서열전》에 오자서가 초나라를 탈출하여 송나라 정나라를 거쳐 오나라로 망명하기까지 겪게 되는 온갖 고초가 잘 묘사되어 있다. 오자서가 오나라로 망명하는 과정에 병까지 얻어 가던 길을 멈추고 걸식하는 일화는 《전국책》의 자료를 활용하여 윤색한 것으로 보인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소관을 빠져나와 의로운 어부의 도움으로 간신히 강을 건넜지만 다시 병든 몸으로 저갯거리에서 구걸하는 일화를 추가하는 이런 점진적 수사 기법은 현대소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사기·오자서열전》에서 오자서가 달아나는 중 이국땅에서 병이 들어 먹을 것을 구걸하는 일련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점진적 묘사는 독자들에게 오자서가 겪게 되는 고초에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겠다는 오자서의 집념이 더 뚜렷하게 부각되는 효과를 주게 된다. 오자서가 오나라로 망명한 후,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과정은 《좌전》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좌전》이 오자서가 오나라로 망명한 후 겪게 되는 일련의 전개 과정을 두루뭉술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사기·오자서열전》은 당시 오나라의 대내외 관계에 대한 분석 및 공자 광의 품은 뜻을 간파하고, 자객 전체를 공자 광에게 추천하고 재야에 묻혀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과정을 매우 풍부하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있다. 《좌전》은 편년체이지만 사건의 단계적인 발전이나 인과관계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마천이 《사기·오자서열전》에서 ‘久之’라는 시간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오자서가 오나라에서 입지를 다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退而與太子建之子勝耕於野’라고 인내의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절치부심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오

16) 《史記·伍子胥列傳》: 伍胥未至吳而疾, 止中道, 乞食. 於吳, 吳王僚方用事, 公子光爲將. 伍胥乃因公子光以求見吳王. 久之, 楚平王以其邊邑鍾離與吳邊邑卑梁氏俱蠻, 兩女子爭桑相攻, 乃大怒, 至於兩國舉兵相伐. 吳使公子光伐楚, 拔其鍾離居巢而歸. 伍子胥說吳王僚曰“楚可破也. 願復遣公子光.” 公子光謂吳王曰“彼伍胥父兄爲戮於楚, 而勸王伐楚者, 欲以自報其讎耳. 伐楚未可破也.” 伍胥知公子光有內志, 欲殺王而自立, 未可說以外事, 乃進專諸於公子光, 退而與太子建之子勝耕於野.

자서의 인내심이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 부각된다.¹⁷⁾ 《사기·오자서열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사마천이 오자서의 망명 과정의 긴박한 장면 연출과 인내심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소의를 지키기 위해 군주의 명과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을 택한 형과는 달리 대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자서의 인물 형상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서사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사마천이 자료의 편집과 윤색을 통해 오자서가 온갖 고초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는 극적 효과를 점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진적 묘사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공명을 이룬 인물을 칭송하기 위한 사마천의 의도된 서사 행위이다.

V. 복수

오자서의 복수는 오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좌전·정공》 四年에 오나라가 오자서의 도움을 받아 초나라 수도 영을 함락시키는 과정이 장황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사마천은 《좌전》의 이런 장황한 전투 자료를 생략하고 오자서와 孫武가蔡나라, 唐나라와 연합하여 초의 수도 영을 함락시키는 과정을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 《좌전》이 전쟁 과정을 아주 시시콜콜하게 기록했다면, 사마천은 《사기·오자서열전》에서 오자서와 孫武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초나라의 수도 영을 함락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아버지와 형에 대한 오자서의 복수 또한 《좌전》은 “庚辰, 吳入郢, 以班處宮”¹⁸⁾ 단 한 줄로 간략하

17) 사마천은 《사기·오자서열전》에서 오자서의 망명, 인내, 복수, 죽음까지의 과정을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 ‘久之’, ‘五年’, ‘四年’, ‘九年’, ‘後二歲’, ‘後五年’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건의 발전과 인과관계 및 인물 형상을 만들고 있다.

18) 《穀梁傳》은 ‘以班處宮’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군주는 군주의 처소에 거하면서 군주의 아내를 아내로 삼고, 대부는 대부의 침소에 거하면서 대부의 아내를 아내로 삼는다. (君居其君之寢而其妻其君之妻, 大夫居其大夫之寢而妻其大夫之妻.)” 《穀梁傳》의 풀이에 따르면 이는 전쟁에서 흔히 보이는

게 처리하고 있다. 《좌전》은 끝부분에서 追敍의 방법으로 오자서와 신포서의 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자서가 달아날 때, 申包胥에게 반드시 초나라를 멸망시키고야 말겠다고 한 오자서의 굳은 다짐과 이에 맞서 초나라를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신포서의 굳은 의지를 대비시키고 있다. 이어서 신포서가 秦나라에 가서 칠일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통곡을 하면서 마침내 秦哀公을 설득시켜 진나라 군대를 출병하도록 한 일에 초점을 맞춰 신포서의 충의를 부각시키고 있다. 사마천 또한 《사기·오자서열전》에서 追敍의 방법으로 오자서와 신포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마천은 오자서의 복수와 그가 행한 복수의 합리화에 서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기·오자서열전》에서 오자서의 복수는 《좌전》에서 기술한 ‘庚辰, 吳入郢, 以班處宮’의 내용과는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사마천은 《사기·오자서열전》에서 “오나라의 군대가 초나라의 수도 영에 입성했을 때 소왕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자 오자서가 초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꺼내 삼백 번이나 채찍질 한 뒤에야 그만두었다”¹⁹⁾라고 기술하였다. 신포서가 사람을 보내 복수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힐문하자, 오자서는 “날은 저물고 길은 멀어 부득이하게 극단적인 방법(日暮途遠, 倒行而逆施之)”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어서 신포서가 진나라의 대궐 앞뜰에서 칠일 밤낮을 쉬지 않고 울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이런 그의 충의에 감동한 진애공이 “초나라가 비록 무도하지만 이 같은 충신이 있으니 어찌 망하게 할 수 있겠는가(楚雖無道, 有臣若是, 可無存乎)”라며 초나라에 전차 500대를 파견하여 초나라를 도와 오나라 군사를 격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장면은 걸으론 무도한 초나라를 위해서 신포서의 직분을 다하는 신포서와 오자서가 대비되면서 상대적으로 오자서의 불의한 모습을 부각시키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 사마천의 또 다른 서사

약탈 양상이다. 즉 오나라가 신분과 지위고하에 따라 초나라에 맞춤형 약탈과 유린을 한 것이므로 오자서의 복수라고 볼 수 없다.

19) 《史記·伍子胥列傳》: 吳兵入楚, 伍子胥求昭王, 旣不得, 乃掘平王之墓, 出其屍, 鞭之三百, 然後已.

의도가 숨겨져 있다. ‘楚雖無道, 有臣若是, 可無存乎’라는 진애공의 말은 《좌전》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사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사마천이 이 부분을 첨언한 것은 진애공의 입을 통해 오자서의 복수에 대한 합리화와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자의 아내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아 들이고, 간신의 참언을 듣고 간언하는 충신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인 어리석고 무도한 평왕의 악행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사마천이 진애공의 말을 첨언한 것은 신포서의 의로움을 부각시키고, 아버지와 형을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인 초평왕의 무덤을 파내 시신에 채찍질을 가한 오자서의 복수 행위를 변호하고 오자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자서가 평왕의 묘를 파헤치고 시신을 꺼내 채찍질한 사건은 《좌전》에는 보이지 않고, 《곡량전》²⁰⁾과 《여씨춘추》²¹⁾에 기술되어 있다. 《곡량전》에서는 평왕의 무덤에 매질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呂氏春秋》에서는 무덤에 삼백 번 채찍질 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빠져있다. 《사기·오자서열전》과 연관성이 있는 〈오태백세가〉에서 “오자서와 백비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평왕의 시신에 채찍질하였다(吳兵遂入郢, 子胥伯嚭鞭平王之尸以報父讎)”라며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초세가〉에도 “합려, 오자서, 백비가 唐나라 蔡나라와 연합하여 초나라 군대를 대파하였다. 오나라의 군대가 영에 입성하여 평왕의 묘를 욕되게 한 것은 오자서 때문이다”라며 평왕의 묘를 욕되게 한 오자서의 행위가 아버지와 형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마천이 《여씨춘추》의 자료를 참고해 시신에 매질을 가한 주체가 오자서와 백비일 것이라고 추론한 것으로 보인다. 《좌전》에 오나라가 초나라 수도인 영을 함락한 후, ‘以班處宮’ 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복수라기보다 전쟁에서 흔히 보이는 약탈의 양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또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드러나 있지 않다. 《사기》

20) 《穀梁傳·定公四年》: 庚申, 吳入楚. 曰‘入’, 易無楚也. 易無楚者, 壞宗廟, 徙陳器, 撻平王之墓.

21) 《呂氏春秋·首時》: 親射王宮, 鞭荊之坟三百.

의 〈오태백세가〉, 〈초세가〉에는 초나라에 대한 복수의 주체가 오자서와 백비 두 사람이고, 그 복수의 대상 역시 평왕의 무덤에 국한되어 있다. 오자서의 복수는 《사기·오자서열전》에서 가장 상세하고 짜임새 있게 묘사되어 있다. 사마천은 ‘鞭屍’한 사건을 오로지 오자서 일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서사 기법을 통해 사건의 팽팽한 긴장감과 주인공의 심리상태를 성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실 오자서가 평왕의 무덤을 훼손하고 시신을 꺼내 채찍질한 것은 소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자서의 직접적인 복수의 대상은 평왕이다. 《사기》에 묘사된 오자서의 성격대로라면 오자서가 설령 소왕을 생포했다고 해도 분명 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꺼내 매질할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사마천이 소왕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서 평왕의 무덤을 파 ‘鞭屍’했다고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전개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특히 사마천은 ‘초평왕의 무덤을 훼손하고 사자의 시신을 꺼내(出其屍)’는 행위를 통해 오자서의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 또 매질하는 구체적인 숫자 ‘三百’을 통해 오자서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에 사마천은 오자서의 복수 행위에 대해 ‘然後已’로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는 오자서의 분노와 증오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묘사로 오자서의 증오와 분노는 더할 나위 없이 심화되고, 사건의 단계적인 발전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사마천은 이런 단계적인 이야기의 발전 과정을 통해 “소의를 버리고 치욕을 갚기 위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이겨내어 공명을 이룬 강인한 열혈 대장부”²²⁾ 오자서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22) 《史記·伍子胥列傳》：“棄小義，雪大恥，名垂於後世。……非烈丈夫孰能此哉。”

Ⅵ. 보은[忠]과 사사(賜死)

〈오자서열전〉은 오나라 군대가 초나라 수도 영에 입성하는 것을 기점으로 오자서 일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진다. 전반부는 오자서의 복수에 서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후반부는 오나라에 충성을 다했으나 억울하게 사사되는 오자서의 비극적 운명에 서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자서열전〉에는 오자서의 일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내재적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이 내재적 연결고리는 복수이다. 오나라가 오자서를 도와 아버지와 형의 복수를 해준 것이 바로 본 열전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내재적 연결고리이다. 오자서는 오나라에 보답하기 위해 오왕 闔閭와 그의 아들 夫差를 도와 춘추시기 변방 약소국에 불과했던 오나라를 춘추오패의 위치로 격상시켰고, 마지막까지 오나라에 충성을 하다가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였다.²³⁾ 〈오자서열전〉에서 오자서가 자신의 복수를 도와준 오나라에 충성하고, 죽음을 무릅쓴 간언을 하다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 과정은 《좌전》과 《국어》를 참고한 듯하다. 《좌전·애공》 원년은 오자서가 오왕 부차로부터 신임을 잃고 太宰 백비가 신임을 얻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해이다. 애공 원년에 오왕 부차는 월나라 군대를 夫椒에서 격파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궁지에 몰린 월왕 句踐은 겨우 오천의 병사로 회계산을 지키며 대부 文鐘을 태재 백비에게 보내 강화를 맺고자 하였다. 이에 오자서가 ‘少康’의 예를 들어 오나라를 일거에 섬멸할 것을 주장(臣聞之, 樹德莫如滋, 去疾莫如盡)²⁴⁾하며 강화를 반대하지만

23) 《史記評林》引黃省曾：“胥也始之盡謀於闔閭者，欲感動其君以爲之報也。終之盡謀于夫差者，思先君復讎之恩而欲忠於其子，亦以報楚故也。自其彎弓之辰至於伏劍，唯一報楚酬親之心已爾。”

24) 《左傳·哀公元年》：“臣聞之樹德莫如滋，去疾莫如盡。”의 자의적은 뜻은 “덕은 계속해서 쌓는 것만 못하고, 병은 완전히 제거한만 못하다.”이다. 대구로 된 이 문장의 의미는 뒤에 본 뜻이 숨겨져 있다. 이 문장에 내포된 의미는 궁지에 몰린 적에게 숨 쉴 틈을 주지 말고 일거에 제거하라는 것이다.

오왕 부차는 끝내 오자서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 오자서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주위 사람들에게 “월나라가 10년 동안 국력을 축적하고, 또 10년 동안 백성들을 가르친다면, 20년 뒤에 오나라의 궁궐은 높이 되고 말 것이다(越十年生聚, 而十年教訓, 二十年之外, 吳其爲沼乎)”라고 하였다. 《좌전·애공》 원년 3월 마침내 오나라는 월나라와 강화를 맺었다. 《좌전》에 오자서의 深謀遠慮한 인물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군주의 신임을 잃어버린 老臣의 근심과 비애가 그대로 묻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기·오자서열전》은 기본적으로 《좌전》의 이러한 인물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少康’과 관련한 단락은 생략되어 있고, 월왕 구천이 문종을 오나라로 보내 강화를 맺게 한 부분은 문종이 오나라 태재 백비에게 후한 뇌물을 쥐 강화가 이뤄진 것으로 윤색되어 있다. 《사기·오자서열전》에 오왕이 강화를 승낙하려고 하자 오자서는 “월왕은 고통을 잘 견디는 사람입니다. 지금 멸망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越王爲人能辛苦, 今王不滅, 後必悔之)”라며 간언을 했지만 오왕이 오자서의 간언을 물리치고 태재 백비의 말을 듣고 월나라와 강화한 것으로 되어있다. 오왕 부차와 오자서의 군신 관계가 멀어지는 시점은 《좌전·애공》 원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 《좌전》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반면 《사기》에서 군신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좌전》에서는 백비가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의 단순한 강화 중재자로 부각되지만, 《사기》에서는 오나라로부터 후한 뇌물을 받고 강화를 중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오자서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오왕은 백비의 계책을 채택하여 월나라와 강화하였다(用太宰嚭計, 與越平)”라고 한 기술을 통해 오자서와 대척점에 서있는 인물이 백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사마천의 합리적인 추론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마천이 백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월나라와 강화를 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백비라는 인물은 《사기·오자서열전》에서 비무기와 성격이 유사한 인물로 묘사된다. 아버지 오사의 비극이 비무기의 참언에서 비롯되었듯이 오자서의 비극 또

한 백비의 참언으로 인해 시작과 끝을 맺는다. 《좌전·애공》 11년에 오나라 군주 구천이 입조하여 오왕과 신하들에게 뇌물을 준 일이 《사기》에서는 백비 한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윤색되어 있고, 오자서의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또한 백비의 참언 때문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 사마천이 이들의 관계가 원래부터 나빴다고 기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오자서의 비극적 죽음에 복선이 깔리게 된다. 백비는 오왕 부차에게 오자서가 고집도 세고 사납고 인정이 없으며, 시기심도 강해 자신의 계책이 쓰이지 않은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 원망을 품고 있으므로 훗날 반드시 큰 화근이 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라고 참언을 하였다. 이러한 백비의 참언은 심지어 오자서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아들을 鮑氏에게 맡긴 것을 백비가 구천에게 고자질하는 것까지도 연결된다. 결국 백비의 참언으로 오자서는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앞두고 남긴 오자서의 마지막 유언은 좌전과 《국어》에도 보인다. 《좌전》에는 “樹吾墓檟, 檟可材也, 吳其亡乎! 三年其始弱矣, 盍必毀, 天, 地道也.”라고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국어·오어》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오자서는 패검을 풀고 “지난날 우리 선왕에게 언제나 보좌하는 현신이 있어 어려움을 결단하고 나쁜 것을 헤아려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습시다. 지금 왕께서 노신을 멀리하시고 오히려 철없는 젊은 신하들과 국사를 논하시면서 ‘내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나 어기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어기지 않는 것이 바로 패망으로 가는 계책입니다. 무릇 하늘이 버리고자 하는 것은 기쁨에 가깝고 큰 우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왕께서 만약 제나라를 쳐서 순조롭지 못해 왕께서 깨달으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오나라는 여전히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선왕께서 성공을 거두실 때는 반드시 성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무릇 실패에는 반드시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재능 있는 인재의 보좌가 있어야 대업을 지킬 수 있고 제 때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왕께서 이런 성공의 조건을 갖고 계시지 못하시니 이는 하늘이 왕에게 준 복록이 이미 다 끝나 오나라의 국운이 다 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을 핑계로 한 곳에 물러나 왕께서 월나라에 생포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먼저 죽기를 청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하고 끝내 자살하였다. 죽기 전에 “내 눈을 동문에 매달아 월나라가 침입하여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하라.”라고 유언을 남겼다.²⁵⁾

사마천은 《국어·오어》를 근거로 《사기》에서 애증이 분명하고 강렬한 성격의 ‘열혈 대장부’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오자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면 탄식하며 “아! 참소를 일삼는 신하 백비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왕이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를 覇者로 만들었고, 네가 왕이 되기 전 공자들끼리 태자의 자리를 두고 다툰 때 죽음을 무릅쓰고 선왕에게 간해 너를 후계자로 정하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는 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네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나에게 오나라를 나누어 주려고 하였을 때도 나는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간사한 신하의 말만 듣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인들에게 “나의 무덤에 가래나무를 심어 왕의 관을 짚 목재로 쓰도록 하라. 아울러 내 눈을 빼내 오나라 동문에 매달아 월나라 군사들이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을 하고 스스로 목을 찢러 자살하였다.²⁶⁾

《좌전》에서 오자서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내 무덤에 오동나무를 심어라! 오동나무가 재목이 될 즈음 오나라가 멸망할 것(樹吾墓檟, 檟可材也, 吳其亡乎)”이라며 예언에 가까운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 오자서는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면서도 신하의 본

25) 申胥釋劍而對曰“昔吾先王世有輔弼之臣，以能遂疑計惡，以不陷又於大難。今王播其黎老，而孩童焉比謀，曰余令而不違，夫不違，乃違也。夫不違，亡之計也。夫天之所棄，必驟近其所喜，而遠其大憂。王若不得志於齊，而以覺寤王心，而吳國猶世。吾先君得之也，必有以取之，其亡之也，亦有以棄之。用能援持盈以沒，而驟救傾以時。今王無以取之，而天祿亟至，是吳命之短也。員不忍稱疾辟易，以見王之親爲越之擒也。員請先死。”遂自殺。將死，曰“以懸吾目於東門，以見越之入，吳國之亡也。《國語·吳語》，上海：古籍，1995년，602쪽.

26) 《史記·伍子胥列傳》.

분을 지킬 줄 아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의 자살 또한 마지막까지 오왕의 마음을 돌려놓으려는 노 충신의 진심이 드러난다. 《좌전》과 《국어》 속의 완곡한 표현과 달리 사마천은 《사기·오자서열전》 ‘仰天歎曰’로 시작되는 장면에서 오자서의 인물 형상을 윤색과 가공을 통해 매우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다. 오자서의 죽음에 대한 강렬한 묘사 속에는 신하의 충정을 몰라주는 우매한 군주에 대한 사마천의 통렬한 비판이 깔려있다. 사마천 또한 자신이 모시는 군주 武帝에게 충성을 다했으나 그에게 돌아온 대가는 죽음보다 더 가혹한 궁형이었다. 사마천은 오천의 보병으로 흉노의 대군을 맞아 선전하다 중과부적으로 흉노에 투항한 이릉을 위해 변호하다 결국 貳師 장군 李廣利를 무고했다는 죄명으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사기》의 완성을 위해 죽음보다 더 가혹한 궁형을 자처하였다. 사마천이 이릉을 변호 한 것은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과 근심에 빠진 무제를 위로하는 한편 이릉을 비난하는 간신들의 입을 막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한무제는 사마천의 이런 충정을 몰라주고 이사 장군을 무고했다는 죄명을 덮어 씌웠다.²⁷⁾ 오자서와 사마천은 서로가 처한 상황과 역할은 다르나 군주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마천이 오자서의 분노어린 유언을 통해 충정을 몰라주는 절대 군주에게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사마천은 또 《사기·오자서열전》에서 오자서의 분노어린 유언을 접하고 격노한 오왕이 “오자서의 시체를 말가죽 자루에 넣어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오나라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강기슭에 사당을 세우고 서산이라고 이름하였다(乃取子胥屍盛以鴟夷革，浮之江中。吳人憐之，爲立祠於江上，因命曰胥山)”라고 민간에 전해지는 일화를 추가하는 기법을 통해 오자서에 대한 세인의 동정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세인의 동정심은 오자서의 억울한 죽음과 충성 및 군주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표현 기법이기도 하다.

27) 사마천이 친구 임안에게 보낸 편지글 〈報任少卿書〉에 이릉사건의 전말과 사마천의 심경이 구구절절 잘 드러나 있다.

VII. 결론

필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좌전》, 《국어》, 《곡량전》, 《한비자》, 《여씨춘추》와 《전국책》 등에 흩어져 있던 ‘오자서 이야기’가 《사기·오자서열전》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변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좌전》이 ‘오자서 이야기’의 뼈대라면 선진의 여타 전적들은 ‘오자서 이야기’의 피와 살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사마천이 선진시기 전적들에 흩어져 있던 ‘오자서 이야기’를 《사기·오자서열전》으로 재편하면서 비교적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좌전》을 주로 참고하고, 또 선진의 일부 사료를 취사선택하고 윤색과 재해석을 통해 사건의 원인→망명→인내→복수→보은(忠)→오자서의 비극적 죽음(賜死)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 열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마천의 ‘일가지언’은 그가 《史記·太史公自序》에서 밝히고 있듯이 “육경에서 상이하게 전해지는 것들을 모아서 절충하고, 백가의 잡다한 견해들을 취사선택²⁸⁾한 것이다. 사마천은 선진시기부터 계승되던 ‘오자서 이야기’를 《사기·오자서열전》으로 재편하면서 《좌전》에서만 자료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서사의 완전성과 합리성²⁹⁾을 고려하여 제자백가에 흩어져 있던

28) 《史記·太史公自序》: “以拾遺補蕪, 成一家之言, 厥協六經異傳, 整齊百家雜語.”

29) 王靖宇는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을 서술할 때, 종종 소설가처럼 서사의 완전성과 합리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건이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中國早期敘事文論集》) 이인호는 사마천이 “역사적 진실보다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문학적 경영’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史記》의 虛構性과 司馬遷의 人生觀-蘇秦張儀列傳을 중심으로) 이들의 주장보다 앞서 근세 학자 梁啓超는 일찍이 《사기》의 이런 특성을 주목하고 “《사기》 저술의 최대 목표는 사마천 자신의 ‘일가지언’을 드러내어 밝히는 데 있으며, 순경이 《荀子》를 짓고, 동중서가 《春秋繁露》를 저술한 것과 성질이 똑 같다. 다만 그의 ‘일가지언’은 역사의 형식을 빌려 드러내어 밝히는 것뿐이다. 따라서 근세사를 읽는 관점으로 《사기》를 읽으면 《사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要籍解題及其讀法·史記》)《장자》, 《한비자》

일부 자료들을 취사선택하고 가공 윤색한 것이다. 사마천은 《좌전》을 ‘오자서 이야기’의 근간으로 삼고, 또 선진 제자백가 자료의 편집과 재해석을 통해 ‘소의를 버리고 큰 수치를 갚기(棄小義, 雪大恥)’ 위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공명을 이룬 ‘열혈 대장부’ ‘오자서 이야기’를 《사기·오자서열전》으로 재편하였다. 《사기·오자서열전》을 통한 ‘오자서 이야기’의 변형은 그의 개인적인 체증이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릉을 변호하다 이사 장군을 誣告했다는 죄목으로 죽음에 직면한 사마천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두려움은 형 오상처럼 소의에 집착해 아무런 가치 없이 생명을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허망한 죽음이었다. 사마천은 《사기》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아무런 의미 없는 허망한 죽음을 택할 수 없었다. 사마천은 친구 임안에게 보낸 〈報任安書〉에서 죽음의 가치에 대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마련이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기러기 터럭만큼이나 가볍기도 한데 그것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人固有一死, 死有重於泰山, 或輕於鴻毛)”고 주장하였다. 사마천은 《사기·오자서열전》의 논찬에서도 생사관에 대해 이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³⁰⁾ 사마천은 생사의 가치와 삶의 의미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죽음보다 더 치욕스럽고 비참한 궁형을 감수할 수 있었다. 이런 생사와 삶의 의미에 대한 사마천의 확고한 신념이 선진시기 전승되고 있던 ‘오자서 이야기’를 《사기·오자서열전》으로 재편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고, ‘문학적 경영’을 불사하면서까지 일시의 치욕과 고통을 이겨내고 발분하여 공명을 이룬 오자서 같은 인물 형상을 만들게 되었다. 우리는 사마천의 이런 생사관이 오자서 일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기》 속 인물 곳곳에 투영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사마천

등 제자서가 자신들의 주장이나 도리를 밝히기 위해 ‘우언’을 들어 설명하듯이 사마천 또한 인간세상의 보편적인 도리와 가치(一家之言)를 전달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자신의 의도에 맞게 ‘문학적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30) 《史記·伍子胥列傳》：“向令伍子胥從奢俱死，何異螻蟻，棄小義，雪大恥，名垂於後世，……故隱忍就功名，非烈丈夫孰能致此哉!”

은 주문왕, 관중, 한비자, 손빈, 월왕 구천, 공자, 소진, 계포 등 일시의 치욕을 감내하고 발분하여 인간승리를 이뤄낸 역사적 인물들의 발분정신을 무척이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³¹⁾물론 사마천 본인의 일생 역시 치열한 발분정신으로 점철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 발분의 소산이 바로 치욕을 감내하고 완성한 불후의 저술 《사기》이다. 사마천은 그의 위대한 저술에서 이런 역사적 인물을 숭상하고, 또 이들의 서사를 통해 위안을 받고 발분하여 불후의 저술 《사기》를 완성하였다. 우리는 그가 남긴 불후의 저술 《사기》를 읽으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발분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친 역사적 인물의 서사 속에 사마천의 아픈 상처와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투영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발분하여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마천과 그리고 《사기》속 인물의 서사는 우리에게 고귀한 귀감이 되며, 위로와 희망 용기를 불어 넣어 준다. 그것이 바로 《사기》가 갖는 힘이며, 지금까지 불후의 명작으로 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이식 편저, 《司馬遷과 史記論》, 대구: 중문, 2015

31) 사마천은 이릉을 위해 변호하다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 죽음보다 더 참혹한 궁형을 자청한 후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발분하여 《사기》를 완성하였다. 궁형은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정도의 충격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다. 그 강렬한 충격과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기》에 묘사된 역사 속 인물과 사건들 속에 투영될 수밖에 없었다. 사마천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서 취사선택하고 편집하여 자신의 가치관·인생관·세계관(一家之言)을 반영하였다. 특히 사마천은 역사상 사소한 의리를 버리고 온갖 굴욕을 견뎌내고 분발하여 공명을 이룬 역사 속 인물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다. 이성규는 그가 편역한 《사기》에서 “管仲·伍子胥·季布 등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李陵의 禍 이후 사마천의 인생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성규 편역 《史記》, 서울 대학교출판부, 1996년, 30쪽.

- 김원중 옮김, 《사기열전》, 서울: 을유문화사, 2002
- 이인호, 〈《史記》의 虛構성과 司馬遷의 人生觀-蘇秦張儀列傳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28호, 2005
- 이성규 편역, 《史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정범진 외 옮김, 《史記》, 까치, 1996.
- (漢)劉向, 《戰國策》, 上海: 古籍出版社, 1985.
- (明)凌稚隆輯校, (明)李光縉增補, (日)有井範平補標, 《史記評林》, 台北: 蘭臺書局, 1968.
- (日)瀧川龜太郎, 《史記會注考證》, 文史哲, 1993.
- 陳洪、姚瑤, 〈先秦子書與伍子胥故事〉, 《徐州師範大學學報》 第34卷 第4期, 2008.
- 陳啓天, 《韓非子校釋》, 中華叢書委員會.
- 陳奇猷, 《呂氏春秋校釋》, 台北: 華正書局, 1985.
- 高雲萍, 〈伍子胥故事的歷史演變〉, 《棗莊師範專科學校學報》 第21卷 第1期, 2004.
- 韓兆琦, 《史記博議》, 台北: 文津, 1995.
- 韓兆琦編著, 《史記箋證》,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5
- 李學勤主編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王靖宇, 《中國早期敘事文論集》, 台北: 長達印刷有限公司, 2001
- 楊華、馮聞文, 〈伍子胥故事的文本流變和中國古代的價值觀〉, 《長江學術》 第3期, 2013.

<Abstract>

The stories of Wu-zixu have been transformed and inherited into various literary genres for a long time in Chinese literature. The prototype

of them fragmentarily remains in ‘Lishisanwen’(歷史散文) and ‘Zhuzisanwen’(諸子散文) in the Pre-Qin Dynasty. Sima-qian, through the editing and sometimes deleting and adding these data, made the stories of Wu-zixu a perfect work. This paper analyzes how Sima-qian completed Shijiwu-zixuliezhuan using these materials. In addition, I discussed not only how the stories Wu-zixu have been transformed and inherited in terms of the reasons of incidents, asylum, perseverance and his death but also how his creative consciousness was reflected in it.

Key Words : 사마천(Sima-qian), 사기(*Shiji*), 오자서열전(*Wuzixuliezhuan*), 오자서이야기(The stories of Wu-zixu), 오자서(Wu-zixu)